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歐洲 通商情報

가. VCR 케이스 最終 決定 임박

(1) 執行委는 VCR 反덤핑 케이스 終結 提案의 세부내용을 新聞報道 許容함. 執行委, 韓國家電3社 및 日本 Funai의 價格 引上 제의를 수락토록 理事會에 제안했으며 기타 업체에 대해서는 확정 反덤핑 關稅가 賦課(韓國產 23.7%, 日本의 Orion 13%) 될 것임.

1988年 8月 이후 賦課되고 있는 예비 反덤핑 關稅는 다음과 같다.

대 우 -23.7%

금 성 -18.9%

삼 성 -17.2%

Orion(日) -13.0%

Funai(日) -11.5%

(2) 理事會 결자는 다소 복잡함. 確定關稅 賦課 및豫備關稅 徵收 제안에 대해서 理事會는 제한적 다수결(Qualified Majority) 원칙에 의해 同提案을 수락할 수 있음.

價格引上(UT) 提案에 대해서는, 만일 理事會가 執行委로부터의 UT 수락 요청을 받고 30日 이내에 제한적 다수결로 부결하지 않는다면, 執行委는 UT를 수락할 수 있음. 비록 일부 회원국들이 UT 수락에 반대하였지만 이 회원국들은 제한적 다수결(54票)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執行委는 理事會에 제안한 날부터 30日이 경과하면 (2月末) UT를 수락할 수 있음. 그러나 執行委는 理事會로부터의 정치적 支持 제스츄어를 원하고 있으며 理事會를 설득하여 제한 다수결로 UT 수락을 지지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

브뤼셀에 있는 英國 상설 대표부에 의하면 17日 委員會 회의에서 내부 反對國들의 의견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理事會의 UT 공식 支持 가능성이 높아짐.

나. 카 라디오 未確認 덤프ing 提訴說

(1) EC內 카 라디오 生산업체들이 韓國 및 日本 輸出業体에 대해 덤프ing 提訴를 했다는 미확인된 소문이 들고 있음.

EACEM 관리들은 이 소문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관련되지도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Philips가 이 提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어짐. 執行委 및會員國 当國은 조사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前까지 本提訴說을 확인하려 하지 않을 것임.

(2) EC 執行委는 최근 EC 條約 115條에 의거하여 韓國產 카 라디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他EC國家를 통한 간접 輸入禁止措置를 허용한바 있음.

다. 本會 自律規制 措置 EC에 通報

本會는 EC 변호사를 통해 1月末에 발표한 일방 輸出 規制 조치에 대해 EC 執行委 고위관리에게 통보.

라. 電子製品 原產地 規定

(1) 執行委는 EC內 現地 工場에서 非EC 業체가 생산하는 EC 產業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일련의 製品에 대해 現地 部品使用 義務 規定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現地 部品使用 規定은 EC 生産品과 「EC 生産品이 아닌」 것에 대해 규정하게 될 것임. 관련 生産은 EC 原産地가 가지는 제반혜택(EC内 無關稅 자유유통, 개별국가의 Quota에 제약받지 않음) 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新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임.

(2) 執行委는 기체택된 IC에 대한 新原產地 규정에 이어 사진복사기, VCR, 컴퓨터 프린터, 石油製品에 대한 原產地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복사기에 대한 新規定의 의도는 美國으로부터의 일부 輸出이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다루는 것임. VCR에 대한 規定은 EC 原產地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45%의 現地 部品 使用을 의무화할 것으로 믿어짐.

마. 日本產 사진 복사기에 대한 原產地 規定 是非

1987年 日本產 사진 복사기에 대한 덤핑 關稅課에 이어 日本의 리코社는 美國 工場에서 생산된 복사기의 对EC 輸出을 증가시켜 왔음. 同社는 美國工場에서 生산된 製品의 美國 原產地를 주장하고 있으나 執行委는 동제품이 日本 原產地이기 때문에 덤핑 關稅를 물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음.

執行委는 原產地 委員會(Origin Committee)로부터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EC 規定上 理事會에 제안하여 3個月 이내 理事會의 과반수가 이에 반대하지 않으면 同提案을 채택할 수 있음.

執行委 提案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現地 部品 使用量 요구 조건을 언급하는 대신 「原產地를 부여하지 않는 작업」 만을 명시 하기로 한 결정인데, 회원국들은 이런 規定은 自社 製品의 原產地를 확실히 결정짓기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음.

바. 스페인, 韓國產 TV의 域內 間接輸入 禁止措置

EC 執行委는 EC條約 115條에 의거 스페인이

요청한 韓國, 日本產 原產地로 域內 기타 회원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Color TV(CN 8528 1073, 1079 : 18인치 이상)에 대한 간접 輸入禁止 조치를 승인.

사. 佛, 韓國產 카 라디오의 域內 間接輸入 금지조치

EC 執行委는 EC 條約 115條에 의거 프랑스가 요청한 韓國 原產地로 域內 기타 회원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카 라디오(CN 8527 2110, 2190, 2900 : 음성 재생기구 부착)에 대한 간접 輸入禁止 조치를 승인.

아. EC - 日本 침 價格協定 締結

半導體 EC와 日本의 業体들은 日本產 Memory Chip의 对유럽 최저 輸出 價格 합의에 거의 도달.

日本產 EPROM, DRAM 半導體들은 오랫동안 反dump 조사 대상이 되어 왔음.

(2) 同合意는 물의를 일으켰던 1986年 美·日 半導體 협정보다 범위가 좁으며 第3國에 판매하는 日本產 半導體 가격에 대한 언급과 유럽 업체들의 对日本 시장 진출 증가에 대한 언급이 없음.

EC는 GATT에서 美日 半導體 협정에 강력히 반대하였음. EC 소식통들은 합의가 확실시되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음. 현재 市場價格은 提案한 최저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자. SONY, 웨일즈의 Color TV 공장 증설 계획

SONY는 남부 웨일즈에 있는 Bridgend 공장의 Color TV와 튜브 生產能力을 증대시킬 3,600万 £의 사업 계획을 추진키로 함.

차. 理事会 VCR 反dump 케이스 終結

1989年 2月 27日 EC理事会는 執行委의 VCR

반덤핑 케이스 종결안을 수락, 종결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삼성, 금성, 대우와 일본 Funai의 가격인상 提議 수락.

○ 日本 Orion에 13%의 확정 反덤핑 関稅 부과

○ 확정 덤핑 関稅率

- 삼성 17.2% (25.2%)

- 금성 18.9% (26.4%)

- 대우 23.7% (29.2%)

- 일본 Funai 11.5% (18%)

- 일본 Orion 13.0% (〃)

* (*) 안은 예비 관세율

○ 其他 EC로 수출되는 韓國產 VCR에는 23.7%의 확정 関稅 부과.

○ VCP, TV 복합품, Mecadeck는 대상품목에서 제외.

執行委는 UT案 수락에 대해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의 지지확보 실패, 이에 따라 UT案은 이사회에 상정되었으며 회원국 12개국중 11개국이 同意理事会決定 (Council Decision)으로 채택됨.

本케이스는 비중있는 電子製品 관련 케이스로서는 최초로 UT가 수락된 케이스로서 EC 정책의 전환점으로 보여짐. 本케이스 UT 준수여부는 韓國의 전자산업과 EC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UT 사항 위반시 즉시 反덤핑 関稅가 부과될 것임.

카. CTV, CDP 케이스

당초 2월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CTV, CDP 케이스 예비판정은 3월말이나 4월초쯤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여짐.

타. 商工部 차관보 EC 협지 辯護士 면담

2月 24日 輸出業체 및 振興會 辯護士, 김철수 차관보와 면담. 本面談에서 韓국과 EC 관계 현황, 輸出自律監視機構 설립 필요성, 政府와 產業間의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됨.

파. 韓国, 知的所有權 분쟁 해결 진전

韓昇洙 商工部長官에 따르면 韓국과 EC間의 知的所有權 분쟁 해결에 진전이 있었음.

韓長官은 同紛爭이 해결될 경우 韩國은 GSP의 재개를 기대한다고 언급, EC는 14個月前 韩국이 유럽 회사들에게 美國의 경쟁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特許權 보호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SP 혜택을 중지했었음.

EC는 금번 韩國의 이러한 조치를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으나 최근 토의에서 EC의 반응은 예상에 못 미침.

하. 韓国, 業體 海外投資 독려

韓國政府, 中小企業으로 하여금 大企業과 함께 海外投資를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海外에 진출하는 大企業에게 현지에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데에 投資政策의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시책은 EC의 Local Content 요구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며 또한 海外投資 增大를 통해 현재 韩國의 경상수지 黑字를 줄이려는 의도이기도 함.

이러한 언급은 최근 韩長官의 유럽 방문중에 행해졌음. 韩長官의 방문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韩국과 EC 간의 무역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짐.

거. 유럽 司法院 Typewriter 原產地 規定 審議

올해말로 예상되는 Brother Typewriter 케이스에 대한 유럽 司法院의 결정은 輸入品에 대한 EC의 原產地 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本케이스는 日本의 西獨內 子会社인 Brother Industries와 西獨 稅關 당국의 분쟁으로 시작. 西獨 稅關 당국은 문제의 타자기가 台灣內의 日本 Brother 공장에서 조립되어 台灣 原產地로 輸出되

었지만 日本 電子타자기에 부과되는 反덤핑 関稅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 현재는 台湾产 타자기에 대해 反덤핑 関稅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

EC 法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최종 主要工程이나 작업이 수행된 国家에서 生産된 제품에 한해 그 国家의 原產地를 인정하고 있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日本产인 部品을 台湾에서 조립하였을 경우 台湾을 原產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美国에서 輸出된 日本 Ricoh 社의 복사기에 대한 원산지 분쟁도 이와 유이한 문제로서 이 문제는 최근 EC 理事会에서 심사 중.

여러 電子製品에 대한 EC의 原產地 规定 提案은 점차 증대되는 보호주의정책에 한 형태로서 간주됨.

너. 執行委, 日本产 복사기에 대해 最終 UT 수락

執行委 Konica 社의 UT 수락, 이로써 日本会社에 의해 EC 内에서 조립되는 복사기에 부과된 Screwdriver 反덤핑 関稅는 모두 종결됨. Konica는 EC에서 生産되는 복사기의 日本产 부품 사용비율이 60% 미만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향후 Local Content의 현상유지 또는 개선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보증을 하였음.

더. 日本, 美国과의 Chip 輸出協定 修正 예정

日本은 美国과의 半導体 협정의 핵심조항의 하나인 第3国内 컴퓨터 Chip 가격 감시제를 修正할

예정. 1985年 체결된 本協定에 따라 第3국에 輸出된 日本产 Chip의 美国内 再販売를 막기 위해 日本은 第3국에 판매되는 日本产 Chip의 가격을 감시하였음.

本協定은 美国会社들의 日本产 Chip의 美国内에서의 덤핑 提訴 결과로서 체결됨.

EC 執行委는 日本이 本監視條項을 통해 第3국內의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GATT規定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음.

1988年 3月 GATT는 현재 日本이 시행하고 있는 감시체계는 GATT規定에 위배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日本은 協定을 수정할 방법을 모색해 왔음.

최근 EC와 日本 사이에 EC内에서 판매되는 日本产 Memory Chip에 대해 최저가격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協定締結이 임박했다는 説이 시사된 적이 있음. 日本产 Chip은 최근 EC 反덤핑 조사 대상이 되었음.

라. Matsushita EC 生産 増大

日本 Matsushita는 향후 3年間 유럽내 現地 生産을 13% 증대하겠다고 발표. Matsushita는 덤핑被訴 위험을 감속시키기 위해 현존 유럽 生産施設을 강화시킴. Matsushita는 또한 유럽의 研究開發施設도 增大시킬 것임.

이러한 政策은 80年代 일련의 反덤핑 提訴対象이 되어온 主要 日本 電子業體들이 취해온 전형적인 정책임. 日本 業體들은 1992年 EC市場統合 이전에 현지 投資를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음.

현재 Matsushita의 EC内 投資는 2 억 6,000 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짐.

